

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2. 8.(수) 행사시작(14:00) 이후	배포 일시	2023. 2. 8.(수)		
담당 부서	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	책임자	과장	김은영	(044-202-2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연	(044-202-2557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희	(044-202-2563)

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'23~'27) 수립 공청회 개최

- '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' 를 위한 정책 의견 수렴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월 8일(수) 14시 대한상공회의소(서울특별시 중구 소재)에서 『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'23~'27)(안)』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.

○ 이번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(안)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.

* 유튜브 '중앙응급의료센터' 채널 통해 실시간 생중계

□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안)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·협력 강화,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'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'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.

○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*를 추진하고, 총 26차례의 총괄 및 분과별 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(안)을 마련하였다.

*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2023~2027) 수립방안 연구('22년 4월~12월/ 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3개의 분과 구성·운영

□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안)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.

○ 이번 기본계획(안)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·이송 단계, 병원 단계, 전문분야별 대응,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, 총 16개 과제를 제시한다.

[영역 1. 현장·이송 단계]

○ 먼저,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으로의 이송 단계까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,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.

- △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, △ 응급의료 전용헬기(닥터헬기)를 확충하여 취약지 이송을 개선하며, △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고 △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원 전(前) 단계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.

[영역 2. 병원 단계]

○ 병원 단계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「필수의료 지원대책」과 연계하여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,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.

- △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여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△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(傳院) 조정을 강화하며, △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.

<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(안) >

현행	개선(안)	책임진료 기능
권역응급의료센터 (40개)	중증응급의료센터 (50~60개)	중증응급*환자 최종치료 * 뇌출혈, 중증외상,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군
지역응급의료센터 (125개)	응급의료센터	중증응급의심환자**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수용
지역응급의료기관 (243개)	24시간 진료센터 (지역 응급실)	일차응급의료 및 경증응급환자*** 최종치료

※ 일부 권역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대상 시범사업 우선 추진('23) 후 단계적 확대(~'25)

, * 중증응급의심환자, 경증응급환자 질환군 및 책임진료기능 정의는 '23년 연구를 통해 마련 예정

- 특히,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(전국 40개소)를 뇌출혈,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(가칭)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~60개소까지 확충한다.
- 또한, 응급처치·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,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.

○ 또한,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,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한다.

[영역 3. 전문분야별 대응]

○ 중증외상, 심뇌혈관질환, 정신응급질환,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 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 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하여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.

- △ 성과 중심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고, △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며, 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.
 - 특히,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 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·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(달빛어린이병원 등)을 확충한다.
-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 응급 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.
- △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, △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,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, △ 재난의료지원팀(DMAT)과 소방·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,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[전략 4. 응급의료 기반]

- 지역 및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.
- △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며, △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 정책기반을 내실화하고, △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.
- 발표에 이어,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2부로 구분하여 관련 전문가 등 1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(안)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.

* 1부 응급일반 :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, 송경준 대한응급의료지도 의사 협의회 이사장,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, 류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,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,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, 이성규 대한중소 병원협회 회장,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,

** 2부 전문분야 : 이경복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,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,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, 김도균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총무이사, 최대해 대한재난의학회 교육총괄이사,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,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,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

○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.

□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“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되었다.”라고 평가하며,

○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”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 “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수립하겠으며,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·이행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(안)을 보완하고,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·발표할 계획이다.

<붙임> 공청회 개요

<별첨>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안) 공청회 발표 자료

붙임

공청회 개요



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

2023년 2월 8일(수), 14:00~17:00

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(서울 중구)

* YouTube 유튜브 '중앙응급의료센터' 생중계

참석 대한응급의학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및 국민
진행순서

구분	시간	내용	비고
1부 (100')	14:00~14:10	개 회	사회자
		개회사 축 사	박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
	14:10~14:30	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(안) 주요내용 발표	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
1부 (100')	14:30~15:40	(응급 일반)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	좌장 :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: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송경준 대한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 이사장 안기중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류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
	휴식(10')	15:40~15:50	휴 식
2부 (70')	15:50~17:00	(전문분야)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	좌장 :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: 이경복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정익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도균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총무이사 최대해 대한재난의학회 교육총괄이사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이형민 대한응급의학회사회 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
		폐 회	사회자